



정읍여성새일센터, 일자리 협력망 회의 가져

정읍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는 19일부터 20일까지 직업교육훈련생의 적극적인 취·창업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일자리 협력망 회의를 열었다.

일자리 협력망 회의는 지역 산업 구조와 일자리 수요 패턴을 통해 빌굴된 직종으로 미래 지향적 여성 인재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력망 회의에는 각 과정 관련 채용 기업과 전문 교육기관 유관기관 등의 인사담당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로 이루어진 2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훈련생들에 대한 효율적인 취·창업 지원 방안과 경력 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또한 지역 수요에 맞는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협력망 기업·기관 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진안서 개최 축제 사전컨설팅 진행

진안군은 지난 19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진안군 대표축제인 '진안홍삼축제'와 지역축제인 '진안고원 김치보쌈축제'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고 지난 3월 개최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의 사후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사전 컨설팅은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 대표축제 및 지역축제의 지속 가능한 축제 성장을 위한 개선 방향과 전략 강화 등을 위해서 진안군에서 제출한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의 수요맞춤형 컨설팅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컨설팅에는 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참석하여 외부 전문가와 다양한 의견을 교류해 의미가 컸다.

홍삼축제 관계자는 "이번 사전컨설팅이 3년 만에 새롭게 현장 축제를 준비하는 추진위원회에 큰 도움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자리였다"며 "진안군 축제를 보다 내실 있고 알차게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 진안홍삼축제는 10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마이든 테마공원과 읍내일원에서 현장 축제로 개최되며, 2022 김치보쌈축제는 11월 중 개최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계농협, 찾아가는 샤인머스켓 수출현장 컨설팅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와 장계농협(조합장·곽점용)이 손을 맞잡고, 지난 19일 샤인머스켓 재배 현장에서 고품질 샤인머스켓 생산 및 수출활성화 컨설팅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컨설팅은 농가 및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으며, 농학 박사 권태영(前경북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 국장)으로부터 생육단계별 관리 방법 및 주요 병·해충의 방제, 수출활성화 방안 등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곽점용 장계농협은 "농가는 안정적인 영농활동 영위에 기여하고자 샤인머스켓 현장설컨팅을 신청해 추진하게 되었다"며,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농가소득증대 도모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소방서, 관내 어린이집 원강기 안전체험

장수소방서(서장 소재실)는 장계어린이집 꿈나무어린이집 원아 및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색적인 원강기 체험 특수시책 인전을 완성하고 원강기타고 인상샷 119안전체험을 실시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장수소방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기면서 안전의식을 기워나갈 수 있도록 OPEN-소방서 운영에 따라 코로나9로 주춤했던 가족인전 119안전체험을 위해 심폐소생술 체험, 물·연기소화기 체험, 소방차 탑승 체험과 국민의 생명줄 원강기' 안전 체험을 진행했다.

특히 봄철 특수시책으로 진행중인 이색 원강기 체험인 '인전을 완성하고 원강기타고 인상샷'은 히어로 복장을 착용하고 원강기를 타는 이벤트로써 체험교육과 놀이를 결합하고 포토존을 운영하여 특별한 인생샷을 남겨 큰 호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꿈나무어린이집 정철순 원장은 "아이들과 안전을 재미고 쉽게 즐기면서 배울 수 있었다"며 소방안전 체험 기회를 만들어준 소방관들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소재실 서장은 "OPEN-소방서 119안전체험을 통해 어린이들이 위험한 상황에서의 재난 대처 능력향상과 생활안전 의식이 힘입될 수 있는 체계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김제 진봉면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순항'

### 추진위원회, 면청사 건립·사업 추진상황 보고·일정 논의

최근 농촌 주민들에 대한 문화생활 및 복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김제시 진봉면의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 화두가 되고 있다.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은 면소재지와 배후마을에 대한 서비스 공급 거점기능을 육성해 생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향을 강화시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해 김제시 진봉면(면장 오승영)은 지난 20일 진봉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위원회(위원장 박용운)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면청사 건립 및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추진위원회와 토지소유자의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사업부지(12,289㎡)에 대한 매입 절차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향후 2025년이 되면 행정서비스와 복지서비스 두 기능을 갖춘 종합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박용운 위원장은 "이번 사업이 주민들에게 필요한 기반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영 면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진봉면 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개선됨은 물론 문화·복지 서비스 혜택도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진봉면의 지역적 특색을 살리고 면소재지에 협력을 더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과의 공감없는 소통을 통해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40억원과 면청사 건립사업 60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 위한 힐링 나들이

남원시치매안심센터(센터장 한용재)는 경증 치매환자 60명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유풍읍 소재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으로 힐링을 위한 나들이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들이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감소되어 침체된 심신을 위로하고 정서적 힐링과 스트레스를 해소하여 삶의 향락 증진을 한 것으로, 남원시치매안심센터와 백두대간 생태교육전시관이 연계·시립치유지도사가 경증치매환자들에게 나무고간, 추억놀이, 자연명상, 웃음스토리텔링 등 자체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치매환자들의 환한 웃음꽃을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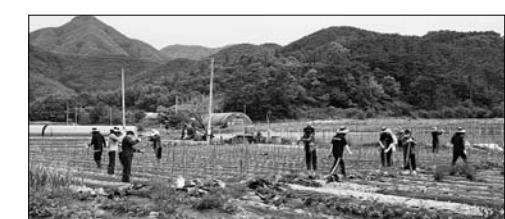
진안 안전재난과, 안천 사과농가 일손 도와

진안군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20일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농촌의 고령화 등으로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안전재난과 직원들은 안천면 백화리에 있는 3만 3000㎡ 규모의 사과농장에서 적과작업을 도왔다.

특히 코로나19를 총체화하는 부서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손 부족으로 힘겨운 농번기를 보내고 있는 농민과 관계자들과 부족한 일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눴다.

구례마을 허씨는 "지금이 사과 적과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하는 시기임에도 일손이 부족해 큰 걱정거리였다"며 "군청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부귀면 농촌일손돕기 추진

진안군 부귀면(면장 박춘선)과 건설교통과 환경과 직원 20여명은 20일 농번기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찾아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

이날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귀면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 자주목 설치 및 출감기 작업을 도왔다.

일손돕기 지원을 받은 박상열씨(78세)는 "농사일이 막았는데 덕분에 한사를 덜었다"며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박춘선 면장은 "이번 일손돕기를 통해 봉사정신을 다시금 일깨울 수 있었다"며 "농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김제 금구면 복지기동대, 방충망 개선 봉사

김제시 금구면(면장 윤상철) 복지기동대(대장 권혁운)는 20일 금구면행정복지센터 1층 상담실에서 대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수급자 어르신을 위한 방충망 개선 봉사를 실시했다.

이날 활동은 2개 조로 나뉘어 추천받은 대상자의 집을 방문하고 직접 점검을 통해 봉사내용을 선정하였고 꼼꼼하게 거주자의 안전과 편안한 환경조성을 기여했다.

권혁운 복지기동대장은 "복지기동대원들이 직접 밭에서 설치까지 진행하며 만족감을 더 느끼고 있다"며 "기동대원들은 수요가 있는 곳 어디든 찾아가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퇴근길 소방관, '소화기 in car'로 초기화재 진압

남원소방서는 방호구조와 안전선 소방사가 지난 4일 18시 40분, 퇴근길에 도봉초 인근의 치량봉 보도에서 지나는 화염과 연기를 발견하고 본인 차량에 휴대하던 차량용 소화기와 자택에 비치된 소화기를 이용하여 초기화재를 진압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인민선 소방사는 "남원소방서 특수시책인 '소화기 in car' 덕분에 화재에 신속한 조치 대처를 할 수 있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1차량 1소화기 비치에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